

결손가정 중학생의 생활경험

최지현* · 정연강** · 염순교***

*중대부중 양호교사, **중앙대 의과대학 간호학과 교수, ***중앙대 의과대학 간호학과 강사

Life Experiences of Middle School Students from Broken Homes

Gee-Hyun Choe, Yeon-Kang Chung, Soon-Gyo Yeom

**Middle School Attached to College of Education, C.A.U.*

***Nursing. Department. C.A.U.*

****Nursing. Department. C.A.U.*

ABSTRACT

This study is designed for the school health education, contributing experience of life from middle school students from broken homes by describing specifically what they go through. And on this basis this study works out a grounded theory on the experience of life for middle school students from broken homes. The data was collected through a series of interviews with nine subjects singled out at each stage of research. With the permission of the subjects, the interviews were recorded and transcribed. The interviews lasted from 30 minutes up to one hour and 20 minutes. The in-depth interviewing methods and observations was used for data collection. The data was analyzed in the framework of grounded theory as mapped out by Strauss & Corbin (1990). By analyzing the materials eighty-three concepts were extracted, and they were united into 21 subordinate categories through the course of analysis. These were classified into nine precedence categories. The core category was found to be the adaptation of "Wichookdem" or "Shrinkage". "Shrinkage" widows experienced was showed as the results "Self-reliance" and "Overcoming" through the course of generation and reaction, confrontation, and adaptation. According to the analysis findings of materials, the central phenomenon was showed as "shrinkage", the causal condition as "surprise", "Darkness", "Grudge", "Desolate", "Empty". The veins as presence of those around people and existence of support, and the meditate situation as self-support. For the strategy in solving "shrinkage", preparations of countermeasure and self-reinforcement were showed. And self-reliance and overcoming were the results. Through the contrast to the cases of ground materials, relation statements as follows were induced; (1) The weaker the suffering is, the weaker the "shrinkage" tends to be. (2) The stronger the suffering is, the stronger the "shrinkage" tends to be. (3) The more frequent and serious the suffering, the stronger the "shrinkage" tend to be. (4) The more infrequent and not serious the suffering is, the weaker the "shrinkage" tends to be. (5) The weaker the "shrinkage" is, the more self-controlled the responses tends to be. (6) The stronger the "shrinkage" is, the more impulsive the responses tends to be. (7) The more satisfying the support is, the more self-controlled the responses to the "shrinkage" tends to be. (8) The more dissatisfying the support is, the more impulsive the responses to the "shrinkage" tends to be. (9) The more concrete the type of support is, the more self-controlled the responses to the "shrinkage" tends to be. (10) The more superficial the type of support is, the more impulsive the responses to the "shrinkage" tends to be. (11) The more self-controlled the responses are, the more self-reliant the subjects tends to be. (12) The more impulsive the responses are, the more conflict and wandering the subjects tends to be. (13)

Whether the responses to the "shrinkage" express themselves in self-control or an impulse, it will be resulted in the form of either tension or pain. The following two were confirmed on the basis of repetitive relations; (1) If a subject's suffering is weak, infrequent and not serious, the "shrinkage" is weak. Also the subject's support is highly satisfying, and the support type is concrete. The responses to the "shrinkage" result in self-control which consequence is self-reliance with part of it resulting in tension and pain. (2) If a subject's suffering is strong, frequent and serious, the "shrinkage" is strong. Also the subject's support is dissatisfying, and the support type is superficial. The responses to the "shrinkage" result in an impulsion whose consequence is wandering with part of it resulting in tension and pain. Through the results in this study, the following is to be suggested; ○ This research is basically aimed at analyzing the experience of the middle school students living in broken homes, for the more inclusive approach, the study for them is made systematically according to the type of their problems.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정상적인 가정에서 인생을 경험한 자녀들은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받으면서 정서적으로 성숙하게 되어 인간성장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건강한 가족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전석균, 1995).

이와는 반대로 사회가 나날이 다양화 되어가고 핵가족화 됨에 따라 비정상적 가정이 발생하게 되었다. 가족의 기능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상호관계가 결여된 가족이며, 여러종류의 역할 갈등, 부적응, 부조화 등이 있는 가족이다.

가족내의 대립 및 결손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가정에 대해 실망을 느껴 가정을 이탈하게 만든다. 이렇게 가정을 떠난 청소년들은 그들을 보호하는 사회환경이 거의 전무한 현실적 여건에서 가족에 대한 반감으로 반사회적 행동을 받아 들이면서 쉽사리 범죄에 빠져들게 된다(윤덕중, 1984; 이병하, 1994).

연구자가 학교 보건실무를 담당하면서 결손가정 중학생들의 대부분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수업시간에 양호실에서 침상 안정을 취하는 시간이 많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접근하려면 결손가정에서 성장하는 이들이 어떠한 생활경험을 가지며, 이들의 어려움은 무엇이고,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들의 생활경험에 대한 실체이론을 깊이 이해하고 접근한다면 이들에게 보다 개별화되고 구체적인 간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결손가정 중학생의 생활경험을 이들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서술하여 규명함으로써 결손가정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주고, 실제이론을 정립하기 위해 근거이론 방법을 이용한 연구를 시도하였다.

2. 연구 문제와 목적

연구 문제 : 결손가정 중학생의 생활과정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는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목적 : 결손가정의 원인과 이들 가정의 생활경험을 기초로 결손가정 청소년 가족의 정책방향과 접근전략을 모색코저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1) 결손가정 중학생의 생활경험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서술한다.

(2) 결손가정 중학생의 생활경험에서 나타난 현상이 갖는 맥락을 서술한다.

(3) 결손가정 중학생이 活用하는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중재 상황을 서술한다.

(4) 결손가정 중학생이 활용하는 대처전략을 서술한다.

(5) 결손가정 중학생이 도달하는 결과를 서술한다.

(6) 결손가정 중학생의 생활경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범주간의 상호작용을 서술한다.

II. 연구 방법

1. 대상자 선정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결손가정에서 성장하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서울 시내 C중학교 진로상담 실장을 방문하였다. 연구자의 연구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였으며, 결손가정에서 성장하고 있는 대상자의 명단과 전화번호를 제공받았다. 대상자들과의 관계형성을 위하여 1회씩 만나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어 면담이 가능한 관계로 발전시켰다.

첫 번째 대상자의 경우, 양호실에서 학교봉사를 하고 있는 학생중의 하나로 연구자가 논문을 준비하는 것을 알고서는 관심있게 물어와 연구제목과 목적,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하자 자신이 대상자가 되기를 자청하였다.

연구자는 대상자와 대화를 나누는 동안 이 여학생이 많은 개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대상자임을 알게되었다. 가능한 많은 범주를 찾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양호실 학교봉사 여학생을 첫 번째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첫 번째 대상자는 이혼으로 인한 편모와 동거중인 여학생이고 두 번째 대상자는 이혼으로 인한 편부와 동거중인 남학생이었다. 세 번째 대상자는 사망으로 인한 편모와 동거중인 남학생이고 네 번째 대상자는 사망으로 인한 편부와 동거중인 남학생이었다. 다섯 번째 대상자는 실종으로 인한 편모와 동거중인 여학생이고 여섯 번째 대상자는 장기부재로 인한 편모와 동거중인 여학생이었다. 일곱 번째 대상자는 별거로 인한 편모와 동거중인 여학생이고 여덟 번째 대상자는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조부모와 동거중인 남학생이었으며, 아홉 번째 대상자는 부모와의 별거로 인해 조부모와 동거중인 여학생이었다.

이상과 같이 9명의 대상자와 면담한 자료가 포화되어 더 이상 새로운 개념이 나오지 않았지만 12명의 대상자와 대화를 통하여 반복, 확인 하였다. 이와같은

과정을 통하여 선정된 9명의 대상자들에 대해서 심층면담과 관찰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 과정은 다음과 같다. 1단계는 관계형성 단계로 기간은 1996년 11월부터 1996년 12월까지 약 1개월동안 수립되었으며 장소는 중학교 양호실에서 학교 방과후 개별적으로 만나 가급적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면담에 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자료수집은 참여관찰로 하였다.

2단계는 본 연구 자료수집 단계로 기간은 1996년 12월부터 1997년 3월까지 4개월동안 수집되었다. 면담은 참여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실시하였고 일부 가정방문을 거절하는 참여자는 양호실에서 실시하였으며,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을 통해 결손가정이 된 그동안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물었다.

대상자들과의 원만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상자들에게 흥미있는 이성친구등에 대한 대화로 자연스럽게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시간은 30분~1시간 2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면담내용 원래 그대로를 자료로 이용하기 위해 대상자의 허락을 받은 뒤 면담과정을 전부 녹음하였다.

자료수집에 사용된 도구는 휴대용 녹음기와 현장 노트였다. 면담횟수는 1회부터 최고 3회까지 진행되었다. 가능한 대상자 스스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도록 하였으며 연구와 관련된 대상자의 서술을 이끌어 내기 위한 질문을 하였다.

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	연 령	성별	종교	생활 정도		결손 형태	결손 기간
				결손전	결손후		
1	13	여	기독교	중	중	이 혼(편모)	4년
2	14	남	천주교	상	중	이 혼(편부)	5년
3	13	남	천주교	상	중	사 망(편모)	3년
4	15	남	천주교	중	하	사 망(편부)	11년
5	15	여	무 교	중	하	실 중(편모)	6년
6	15	여	불 교	하	하	장기부재(편모)	9년
7	15	여	기독교	중	중	별 거(편모)	2년
8	15	남	불 교	중	하	사 망(조부모)	3년
9	14	여	기독교	중	하	별 거(조부모)	4년

주요 질문내용은 결혼가정에서 느끼는 점이나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였으며, 생활태도의 변화와 현재 가정생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서술적 개방형 질문을 하므로써 자연스럽게 구체적 경험을 끌어내었다.

3. 자료 분석

대상자와 면담후 즉시 한 문장씩 기록하여 정리하였으며 각 페이지마다 여분을 남기어 분석에 사용하였다.

대상자와의 모든 면담자료는 컴퓨터에 입력, 보관되었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절차는 경험적 결과로부터 이론을 도출해내는 Strauss & Corbin(1990)의 근거이론에 의한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 단계는 다음과 같았다.

1) 대상자와의 면담내용을 기록한 녹취록과 현장노트를 면밀히 검토하고 의미있는 절과 문장에 밑줄 긋는 작업을 행하였다.

2) 대상자의 표현 내용중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표현을 제거하고 의미있는절과 문장을 개방 부호화 과정을 통해 자료를 분류하고 비교, 검토하여 개념화하고 비슷한 개념끼리 묶어 범주화하고 사례를 제시하였으며 그 빈도와 강도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였다.

3) 각 범주와 하위 범주들과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개념 요약후 공통성을 고려하고 상위 개념으로 범주화하여 중심 범주를 발견하였다.

4) 각 범주간의 결과분석 결과의 체계화와 포괄적 접근을 위해 근거 이론들에 맞춰 범주화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중재상황을 고찰하였다.

5) 범주화의 내용과 요약, 결혼가정의 생활경험에 대한 연구과정을 기술하고 다른 범주들과의 관계 진술과 결과를 도해로 제시하였다.

6)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는데 자료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 연구과정의 평가, 연구결과에 대한 문헌적 지지를 확인하였다.

III. 자료 분석 결과

면담을 통해 나타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근거자료 분석에서 나타난 개념 및 개념의 범주화

본 연구자가 면담과정에서 대상자들을 관찰한 결과

나타난 주요 특성과 함께 근거자료 분석에서 나타난 개념들을 제시하였다.

1) 개념

결혼가정의 경험을 가진 서울시에 거주하는 남, 녀 중학생 9명을 대상으로 부모 상실 순간부터 겪었던 생활 경험을 연구, 분석한 결과 83개의 개념들을 추출하였다. 각 개념들에 대한 근거자료는 아래와 같다.

충격받음, 무서움, 두려움, 불안함, 졸도함, 기억안남, 캄캄함, 억울함, 원망, 화남, 무시당함, 울화참, 말막힘, 막막함, 멍함, 믿어지지 않음, 자리빔, 허전함, 의미상실, 자살충동, 자학, 거리감, 공감대 결여, 이중성, 심리적 상처, 쓸쓸함, 수치심, 멧힘, 안타까움, 모성 연민, 가슴아픔, 답답함, 부서질듯함, 궁핍, 힘겨움, 책임증가, 병들, 간직함, 보고픔, 외로움, 울음, 아쉬움, 측은한 마음, 음수, 출연, 기분불이, 가출충동, 숨김, 삭힘, 망각, 애씀, 깨우침, 견뎌냄, 절제, 희망적 사고, 미래지향, 근면, 무신경, 자신신뢰, 다짐함, 참음, 염려해줌, 위안됨, 붙들어줌, 힘이됨, 알아줌, 믿어줌, 홀로서기, 우월감, 안도감, 자신감, 적극적 행동, 긍정적 사고, 긍정적 행동, 의지력, 스승지지, 종교지도자 지지, 또래집단 지지, 형제지지, 신을 의지함, 극복함, 이해함, 바람 등 83개의 개념으로 분류하였다.

2) 하위 범주

근거자료를 분석한 결과 나타난 개념들을 포괄하는 하위 범주들을 제시하고 범주화의 근거를 요약하였다.

놀람, 캄캄함, 원망, 막막함, 텅빔, 자괴, 움츠림, 쓰라림, 부담, 그리움, 슬픔, 빗나감, 뿌리침, 덮어둠, 다스림, 지지, 주위지지, 감당함, 충실함, 절대자 지지, 이겨냄 등 21개의 하위 범주로 분류하였다.

3) 상위 범주

21개의 하위 범주를 분석하여 아래와 같이 9개의 상위 범주로 다시 묶어 범주화 하였다(표2 참조).

기막힘, 고통, 힘겨움, 위축, 충동적 대처, 자제적 대처, 자립, 지지유무, 극복함

2. 근거이론 패러다임에 따른 범주 및 과정분석(표 2 참조)

1) 결혼가정 학생의 결혼경험에 관한 패러다임 모형(그림 1 참조)

Strauss & Corbin(1990)의 근거이론 개발과정에

표 2. 근거이론 패러다임에 따른 개념 및 범주

개 념	하위 범주	상위 범주	패러다임
충격받음, 무서움, 두려움, 불안함	놀 람		인과적 조건: 놀 람, 깜깜함, 원 망, 막막함, 텅 빔
졸도함, 기억안남, 깜깜함	깜깜함		
억울함, 원망, 화남, 무시당함, 울화참	원 망	기막힘	
막막함, 막막함, 멍함, 믿어지지 않음	막막함		
자리빔, 허전함	텅 빔		
거리감, 공감대 결여, 이중성, 심리적 상처, 쓸쓸함, 수치심	움츠림	위축됨	중심현상: 위축됨
넋힘, 안타까움, 모성연민, 가슴아픔, 답답함, 부서질듯함	쓰라림	고 통	맥락: 고 통
염려해줌, 위안됨, 힘이됨, 붙들어줌, 알아줌, 믿어줌	지 지		
스승 지지, 종교지도자 지지, 또래집단 지지, 형제지지	주위 지지	지 지	중재상황: 지지
신을 의지함	절대자 지지		
의미 상실, 자살충동, 자학	자 괴		
음주, 흡연, 기분풀이	빚나감	충동적 대처	
가출충동	뿌리침		전략: 충동적 대처, 사제적 대처
숨김, 삭힘, 망각	덮어둠		
애써, 깨우침, 견뎌냄, 절제, 희망적 사고, 미래지향, 근면, 무신경, 자기신뢰, 다짐함, 참음	다스림	자제적 대처	
적극적 행동, 긍정적 사고, 긍정적인 행동	충실함		
궁핍, 힘겨움, 병들, 책임증가	부 담		
간직함, 보고픔, 외로움	그리움	힘겨움	
울음, 아쉬움, 측은한 마음	슬 픔		결과: 힘겨움, 극복함, 자 립
극복함, 이해함, 바램, 의지력	이겨냄	극복함	
홀로서기, 우울감, 안도감, 자신감	감당함	자 립	

따라 개방 부호화 과정에서 나타난 범주를 중심 현상을 발생시킨 인과적 조건, 대상자가 전략을 세워 해결하려고 하는 목표인 중심현상, 현상에 관계하는 일련의 구조적 장으로서 속성과 정도의 영역으로 정의되는 맥락, 주어진 맥락속에서 전략을 추진하거나 억제하는 작용을 하는 현상과 관련된 구조적 상황인 중재 상황, 현상에 대처하는 개인 또는 집단의 작용/반작용인 전략, 전략을 통해 나타나는 결과인 해결과정으로 분류하고, 이들이 중심현상을 축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밝히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인과적 조건 : 놀람, 깜깜함, 원망, 막막함, 텅빔
본 연구에서 근거자료를 분석한 결과 "놀람" "깜깜

함" "원망" "막막함" "텅빔" 등의 범주가 중심현상 "위축됨"을 일으키는 원인 즉, 인과적 관계에 있는 조건으로 나타났다.

인관적 조건이 대상자에게 "위축"을 일으키는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사람들을 대할 때 어려움이 따르는 상황, 나누는 사랑에 대해 익숙하지 않아 고립감을 나타내는 상황, 대인관계에 있어 거리감을 두며 자기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상황 등에서 대상자는 "위축"을 경험하였다.

이상에서 열거한 다양한 상황들이 모두가 "위축"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인과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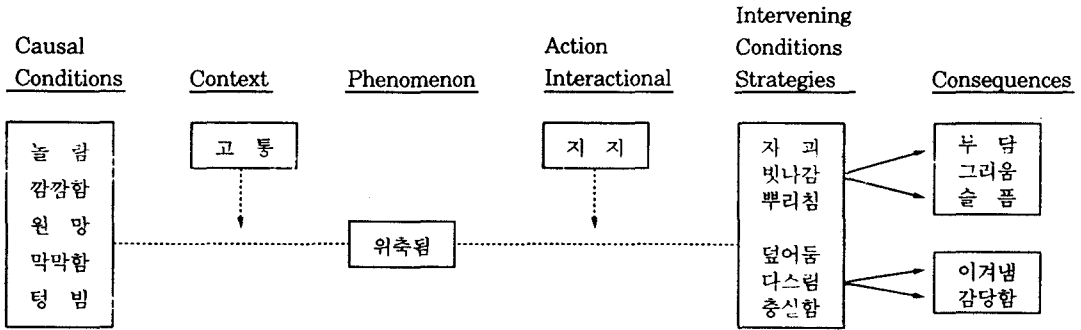


그림 1. 결손가정 중학생의 생활경험에 관한 패러다임 모형.

이들은 강도와 빈도라고 하는 두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정도의 범위는 각각 강-약, 잦음-드물음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2) 중심 현상: "위축됨"

본 연구에서는 결손가정 학생이 그들의 가정내에서 경험한 부모 상실을 어떻게 느끼고, 표현하면서 대처하는가와 관련된 모든 일련의 행동이 중심현상 "위축됨"을 중심축으로 전개되는 것으로 나타냈는데 이것이 중심현상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이었다.

근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위축됨"이란 인과적 상황에 의해 대상자가 인지하는 현상으로서 대상자의 사회적 맥락, 그가 처한 중재 상황과의 상호작용을 거치면서 다양한 양상의 대처를 통해 적응되어 가는데, 연결 부호화의 과정에서 중심현상 "위축됨"은 모든 범주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상실로 인해 발생한 "위축됨"은 대인관계속에서 심리적 상처를 받고 거리감을 느끼는 답답한 심정과 긴장 상태 등을 경험하면서 나타났다.

"위축됨"의 속성은 강도, 기간, 빈도이며 정도의 영역은 강-약, 장-단, 잦음-드물음 이었다(표 4 참조).

(3) 맥락 : 고통

본 연구에서 근거자료를 분석한 결과 "위축됨"의

표 4. 중심 현상의 속성과 정도의 영역

범 주	속 성	정도의 영역
위축됨	강 도	강함-약함
	기 간	장-단
	빈 도	잦음-드물음

생성, 대처, 변화까지의 모든 전개과정이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즉, 부모의 상실로 인한 충격과 장애에 대한 막막함, 일상 생활에서의 새로운 역할과 증가된 책임에 대한 불안함, 두려움 등의 정서는 "위축됨"의 복합적 감정으로 나타나며 본인 자신이 자각하는 정도에 따라 "위축됨"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전략과 결과 또한 나르게 나타난다. 이와 같이 고통, "위축됨"의 표현을 결정하는 기본적인 틀이라는 점에서 맥락을 형성하였다.

고통은 강도의 속성을 지니며, 정도의 영역은 강-약이고 심각성은 정도와 빈도의 속성을 가지며, 정도의 영역은 심함-경함, 잦음-드물음 이었다(표 5 참조).

(4) 중재 상황 : 지지

본 연구에서 근거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위축됨"의 생성, 대처, 변화의 모든 전개과정이 대상자를 어떻게 지지해 주는지의 지지 정도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재상황으로서의 지지란 대상자가 자신에게 힘이 되어주고 영향을 받

표 3. 인과적 조건의 특성과 정도의 영역

범 주	속 성	정도의 영역
놀 람 감감함 원 망 막막함 텅 빈	강 도	강함-약함
	빈 도	잦음-드물음

표 5. 중재 상황의 속성과 정도의 영역

범 주	속 성	정도의 영역
지 지	만족도 형 태	높음-낮음 피상적-구체적

는 모든것을 일컫는 것으로 절대자, 종교 지도자, 스승, 형제, 또래집단 등은 주위지지에 속하였다.

민어줌, 알아줌, 힘이됨, 붙들어줌, 염려해줌, 위안됨 등은 지지 형태에 속한다. 이처럼 지지 및 지지형태의 주어진 상황속에서 전략을 억제하거나 촉진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구조적 상황이라는 점에서 중재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지의 속성은 만족도이며 정도의 영역은 높음-낮음이고, 지지 형태의 속성은 형태이며 정도의 영역은 피상적-구체적 이었다(표 6 참조).

(5) 전략 : 충동적 대처, 자제적 대처

본 연구에서 근거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대상자 주변의 지지는 인지된 "위축됨"의 강도에 영향을 미쳤다. 인지된 "위축됨"은 그 강도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의 대처 전략을 선택하는데 이때 지지 만족도, 지지 형태 등이 대처 전략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대상자의 "위축됨"이 강한 경우 지지 만족도가 낮고, 지지 형태가 피상적이면 대상자는 위축되고 반사회적인 행위를 보이며 자신을 혐오하고 확대하며 스스로를 파괴하거나 모든 상황을 뿌리치고 가출하는 충동적 전략을 선택하였다.

대상자의 "위축됨"이 약한 경우 지지 만족도가 높고 지지형태가 구체적이면서 사고 방향이 미래지향적이면 대상자는 "위축됨"에 대한 대처를 잊어버리고, 삭히면서 덮어두거나,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애쓰고 참으면서 기다리거나 무시하고 떨쳐버리면서 자신을 다스려 할 일을 해나가는 "자제적" 전략을 선택하게 된다.

이상의 모든 행동은 모두 일정한 상황 또는 맥락속에 주어진 현상 즉, "위축됨"을 관리하거나 또는 이에 대응하려는 대상자의 작용/반작용 이라는 점에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었다.

(6) 결과 : 힘겨움, 극복함, 자립

본 연구에서 근거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나타난 범주중 결과에 속하는 것으로는 "힘겨움", "극복함",

"자립"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략의 결과로 현실의 상황을 받아들여 열심히 일을 하지만 정신적, 신체적 한계에서 힘에 부침을 느끼게 되고, 언제나 여유없는 궁핍한 생활에 힘겨운 모습을 나타냈다.

부모상실로 인한 삶속에서 자신이 극복해온 역할과 책임에 대해 대체로 자긍심과 만족한 감정을 나타냈다. 평소에 이해하지 못했던 어려운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며 어려운 생활속에서도 조그마한 바램을 가지고 있는 긍정적 모습을 나타내었다.

2) 과정 분석

Strauss & Corbin(1990)은 과정(Process)이란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일어나는 사건의 흐름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설명되어져야 한다고 했다.

본 연구에서는 결손가정 중학생이 경험하는 삶의 과정에서 나타난 핵심범주인 "위축됨"의 생성에서 결과까지를 분석하였다.

(1) "위축됨"의 생성과정

부모를 불시에 잃은 자녀의 경험은 부모의 부재로 인한 위축된 상황의 생성과 상황에 대한 반응, 그리고 대응, 상황의 전개에 따른 변화,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위축됨"의 생성은 부모의 부재로부터 시작되었다. 부모의 상실로 인하여 느끼는 놀람, 감쌌함, 원망, 막막함, 텅빔 등은 부모의 상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축됨"으로 증폭된다.

(2) "위축됨"에 대한 대처과정

부모의 상실을 확인한 후 증폭된 위축된 감정은 현실을 부정-수용하는 단계에서 주체하기 어려운 절망감에 빠지게 된다. 대상자는 위축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대처전략을 선택한다.

주어진 상황과 맥락속에서 대상자는 생성된 "위축됨"에 능동적으로 반응하며 그 상황을 해석하면서 상징을 쓰고, 자신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전략을 선택한다. 선택된 전략에 따라 결과는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위축됨"과 "고통"간의 괴리정도는 대상자의 반응양상에 영향을 미치고, 지지 만족도 및 지지형태는 대상자의 대처전략을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와 같이 상호작용을 통하여 "위축됨"에 대응하려는 대상자의 반응은 충동적, 자제적 대처로 나타난다.

표 6. 전략의 속성과 정도의 영역

범 주	속 성	정도의 영역
충동적 대처	강 도	능동-수동
자제적 대처		강함-약함

(3) "위축됨"의 변화과정

"위축됨"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성-대처-변화의 과정을 거치는 시간적 현상이다. 대상자는 선택된 대처 전략에 따라 행동노선을 설정하여 자신이 처한 상황과 자신의 행위가 나아갈 방향을 비추어 보고 의미를 선택하고, 검사하고, 분류하고 재편성, 변형시키면서 변화해 나간다.

여기에서 언급된 변화는 "위축됨"의 상황에서 자립한 긍정적 변화뿐만 아니라 부담, 그리움, 슬픔 등과 같은 부정적인 변화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결과의 발생과 함께 "위축됨"이라고 하는 하나의 현상에 대한 변화 과정은 마무리 된다. 여기서 나타난 결과는 주어진 맥락과 중재상황의 상호작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3) 가설적 정형화

각 범주간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유형을 근거자료에서 찾아내기 위한 첫단계로서, 중심현상의 속성과 정도의 영역, 맥락을 형성하는 각 범주의 속성과 정도의 영역, 중재상황을 형성하는 범주의 속성과 정도의 영역 사이에 있을 수 있는 모든 상관관계를 정형화하여 배열하는 것이다(Strauss & Corbin, 1990; 권혜진, 1994).

본 연구에서 근거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심현상은 "위축됨"으로 나타났고, 맥락은 대상자의 고통이었으며, 중재상황은 지지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근거 자료 속에 그 속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고통과 중심현상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가설적 관계와 지지, 지지형태 및 중심현상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가설적 관계를 도출하여 정형화해 보면 아래와 같다.

- (1) "위축됨"이 강하고 대상자의 고통이 강한 경우
- (2) "위축됨"이 강하고 대상자의 고통이 약한 경우
- (3) "위축됨"이 약하고 대상자의 고통이 강한 경우
- (4) "위축됨"이 약하고 대상자의 고통이 약한 경우
- (5) "위축됨"이 강하고 고통의 빈도가 잦은 경우
- (6) "위축됨"이 강하고 고통의 빈도가 드문 경우
- (7) "위축됨"이 약하고 고통의 빈도가 잦은 경우
- (8) "위축됨"이 약하고 고통의 빈도가 드문 경우
- (9) "위축됨"이 강하고 지지 만족도가 높은 경우
- (10) "위축됨"이 강하고 지지 만족도가 낮은 경우
- (11) "위축됨"이 약하고 지지 만족도가 높은 경우

- (12) "위축됨"이 약하고 지지 만족도가 낮은 경우
 - (13) "위축됨"이 강하고 지지형태가 피상적인 경우
 - (14) "위축됨"이 강하고 지지형태가 구체적인 경우
- 4) 관계 진술

관계 진술은 가설적 정형화를 근거자료속의 사례와 지속적으로 대조하면서 근거자료의 분석과정에서 나타난 중심현상과 인과적 조건, 맥락, 중재상황, 결과와 전략의 속성 사이의 가설적 관계를 정도의 영역에 의해 진술해 보는 것이다(Strauss & Corbin, 1990; 권혜진, 1994).

본 연구에서 근거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심현상은 "위축됨", 인과적 조건은 "기막힘", 맥락은 "고통", 중재상황은 "지지"로 나타났고, "위축됨"에 대처하는 전략으로는 "충동적 대처", "자제적 대처"가 있었으며, 결과는 "극복함", "자립", "힘겨움"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범주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관계 진술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 (1) 고통이 약할수록 "위축됨"은 약해질 것이다.
- (2) 고통이 강할수록 "위축됨"은 강해질 것이다.
- (3) 고통의 정도가 심하고 빈도가 잦을수록 "위축됨"은 강해질 것이다.
- (4) 고통의 정도가 경하고 빈도가 드물수록 "위축됨"은 약해질 것이다.
- (5) "위축됨"이 약할수록 자제적 대처를 할 것이다.
- (6) "위축됨"이 강할수록 충동적 대처를 할 것이다.
- (7) 지지 만족도가 높을수록 "위축됨"에 대해 자제적 대처를 할 것이다.
- (8) 지지 만족도가 낮을수록 "위축됨"에 대해 충동적 대처를 할 것이다.
- (9) 지지형태가 구체적일수록 "위축됨"에 대해 자제적 대처를 할 것이다.
- (10) 지지형태가 피상적일수록 "위축됨"에 대해 충동적 대처를 할 것이다.
- (11) "위축됨"에 대해 자제적 대처를 할수록 자립하게 될 것이다.
- (12) "위축됨"에 대해 충동적 대처를 할수록 갈등과 방황하게 될 것이다.
- (13) "위축됨"이 생성되면 대처전략과 관계없이 긴장과 고통은 남을 것이다.

5) 연구의 평가

본 연구에서 구성된 근거이론 연구의 평가는 연구

과정을 중심으로 이론의 근거성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자료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과 연구과정의 평가, 연구 결과에 대한 문헌적인 지지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상에 대한 기술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대상자의 표현을 있는 그대로 인용하고 표현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근거자료 분석을 통해 나온 개념들을 대상자에게 제시하여 동의를 받는 과정을 통해서 개념과 범주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을 통하여 찾아낸 83개의 개념들을 분류하여 21개의 하위범주로 묶었다. 대상자 3명에게 제시하여 자신의 경험을 충분히 기술하고 있는 개념이라는 동의를 얻었으며, 각 개념들의 범주화도 타당하다는 동의를 얻었다.

또한 자료분석 과정을 근거이론 방법에 근거하여 진행하였으며, 부모 상실로 인한 결손가정 중학생을 표본으로 하여 핵심 범주인 "위축됨"에 대한 생성과 대응 및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한 결과 논의에서 상론한 바와 같이 문헌의 지지를 받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IV. 논 의

논의 과정에서는 연구결과 나타난 범주들과 연구과정에서 나타난 특성들을 선행연구와 비교해 보고, 보건학적 측면에서는 어떤 의의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결손가정 환경이 성장하는 청소년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하에 생활경험 정도가 어떤지를 구체적으로 규명하는데 의의를 두었다.

본 연구의 근거자료를 분석한 결과 창의력과 사고가 발달하고 신체기능이 강화되는 중학생 시기에는 학동기 때와는 다르게 새로운 방식으로 결손가정의 생활 양상을 이해하였다. 그리하여 '논란', '깜깜함', '원망', '딱딱함', '팅빔' 등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갈등은 중학생에게 "위축됨"을 생성시켰다.

본 장에서는 근거자료의 분석과정에서 드러난 21개의 범주와 핵심범주 "위축됨"의 생성-반응-변화-결과를 따라 서술형식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부모의 상실이나 부재로 인해 어린시절부터 각 연

령에 따른 발달과업을 이루지 못한 중학생은 고충기를 맞이하면서 여러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사회적 정체감의 상실 및 수입감소로 인해 경제, 사회적 위기를 맞이하게 되어 외로움과 슬픔을 경험하게 된다.

갑작스러운 부모의 죽음을 아는 순간 자녀는 엄청난 충격과 당황을 느끼며 이것은 순간 기막힘으로 전환되며, 부모의 죽음을 확인하는 순간 놀람과 명함의 상태를 보인다. 감정표현이 중단된 상태인 멍한 상태는 여러 문헌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Lasgari & Stehbins, 1983).

권혜진(1980)은 죽음 의식에 관한 연구에서 주위 인물의 사망을 경험한 대상자의 50% 정도가 죽음 자체를 거부하는 태도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함을 나타냈다. 현실 상황을 믿지 않으려 하는 감정은 슬픔보다는 무감각하고 감정표현이 중단된 멍한 상태로 나타났다.

상실에 대한 부정은 반복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현실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단계로 접어든다. "위축됨"의 감정은 자신이 처한 현실의 위기와 괴로움, 슬픔, 원망, 억울함 등의 감정과 불확실한 장래에 대한 불안과 가정생활에 대한 걱정,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역할과 책임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된다. 현실을 수용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육체적, 정신적, 한계와 생활의 궁핍함 등을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 시기에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크던, 작던 갈등과 좌절을 경험한다. 이러한 갈등과 좌절로 인한 고통은 개인의 차이가 있으며 가정교육에 따라 형성된 인격의 성숙도 및 적응 기제의 차이에 의해서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어려서부터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어려움이 있는 경우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므로 중학생 시기에는 주위의 환경적 여건에 따라서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에 적절히 대처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게된다(김현수, 1980; 김소야자, 1990).

본 연구의 자료분석 결과 "기막힘"에 의해 생성된 "위축됨"의 강도는 행동을 통제하고, 반응할 환경의 특징을 선택하며, 어떤 욕구를 어떻게 만족시킬 것인지를 결정하는 요소 즉, 멧힘, 안타까움, 모성연민, 가슴앓음, 답답함, 부서질듯함 등과 같은 고통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결정된 "위축됨"의 강도는 대

상자들이 선택하는 대처전략에 영향을 미쳤다.

대상자는 부모의 상실이나 부재로 인한 힘겨운 환경에서 성장해 왔음으로 고통이 심할 때 대상자는 “위축됨”에 대하여 충동적 대처를 하였다. 그 결과 대상자는 자신의 역할에 대한 갈등과 무력감을 느끼면서 반사회적 행동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대상자는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자살충동과 가출 충동 등 자학에 빠져들고 있었다.

이와 같이 결손가정은 부정적 대응기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현상은 가정환경과 문제행동 유형간의 관계를 분석한 일부 연구의 보고에서 지지된다.

부모 및 가정 안정도 등의 가정 분위기가 자아 및 초자아 형성에 관여하는 변수로 작용한다는 김현수(1980)의 보고와 청소년은 가족의 특성에 따라 그 성숙에 영향을 받는다고 한 Bowerman & Bahr(1973), Harris & Howard(1981), Andersen(1990)의 보고 등을 참조해 보면 개인의 기질이나 성격 및 가정환경은 우리사회에서 발생하는 많은 청소년 문제의 근원적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 결과 대상자 자신이 “위축됨”의 현상이 나타날 때 지지, 지지형태에 따라서 대상자의 역할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대상자의 지지, 지지형태가 구체적인 경우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고 “위축됨”에 대해 자제적 대처를 하였다. 이 경우 대상자는 자신이 행하는 행동의 결과를 예측하면서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다. 대상자는 적극적 행동, 긍정적 사고, 긍정적 행동으로 생활에 충실함을 보여 주었다.

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충분한 지지를 받는 데에 실패한 대상자는 그들의 “위축됨”에 대한 충동적 대처로 야기되는 결과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부정적인 “위축됨”으로 변화하여 방황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여러 선행연구에서 지지되고 있는데(Torma & Halsti, 1975; Blagg, 1979; Heath, 1983; Pyson, 1990), 바람직하지 못한 가정환경적 요인이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사회적 역할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준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 결과를 보면 대상자들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자녀간의 관계가 손상되어 이웃에 대

한 관심과 삶에 대한 신뢰감을 증진하는 경험의 장을 제공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분노와 좌절감 및 체념을 일으켜 대상자는 반사회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부정적인 자아 정체감을 표출하였다.

대상자가 결손가정에서 무력감과 낙후감을 느끼며 의존적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힘겨운 상황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어 가출을 하게 되는데 이와같이 가출한 후에는 위험한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청소년 가출은 오늘날 한국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청소년 가출 행동에는 가정 안정도, 부모-자녀 관계, 가정 만족도 등의 가정환경 변인이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김현수, 1980).

청소년 자녀들의 비행에 영향을 주는 원인적 요인을 가정환경에서 찾는 선행연구(Lurie, 1970; 김현수, 1980; 민병근, 1981; 이길홍 외, 1994; 윤덕중, 1984; 김선남, 1994; 이병하, 1994)에서도 불건전한 가정환경이 청소년의 가출 및 비행 등과 같은 이탈행위를 조장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비행청소년의 여부는 가족의 응집력과 가족관계의 질에 달려있다고 하였다.

결손가정 청소년은 가족 구성원간 취약성, 대화의 결여, 불안정한 가족분위기로 인하여 어린시절 애정과 관심에 대한 욕구를 충족받지 못한 상태에서 성장하여 청소년기에 이르게 된다. 이때 대상자 자신의 “위축됨”이 강하면서 인격적 성숙도가 높은 지지자로 부터 구체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면 대상자는 “위축됨”을 경험할 때 세상에 대한 적개심으로 파괴적인 행동과 사회적 규칙을 무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 결과를 보면 결손가정에서 성장하는 청소년은 형식적으로는 또래집단과의 유대관계도 강하고 의존도도 높았지만 사실상 자신의 內面적 문제는 자존심과 두려움으로 가능하면 친한 친구에게도 드러내지 않고 숨겼다.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 보이는 경우에도 자신과 처지가 비슷한 친구 한두명에게만 어느정도만 털어놓았다. 대인관계를 할 때에 경계적이며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였고, 동성 및 이성 친구에게 마음속 고민을 속 시원히 털어놓지 않았다.

대상자들은 자신이 성장해온 가정환경으로 인해 또래집단과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거리감이 생긴다고 하면서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자료분석 결과 “청소년기 동안은

외면적인 결합이 아닌 내면적인 결합 즉, 인격적 결합을 할 수 있는 친구를 요구한다"라고한 김소야자(1990)의 견해와 일치하는 점도 있으나 대상자들의 바람직하지 못한 대인관계는 건전한 교우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 결과 결손가정 청소년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기 보다는 지속되는 내적갈등과 압박으로 위축되어 스스로를 쓸모없는 존재로 느끼며 삶에 대한 회의와 허무감이 나타났다.

대상자는 "위축됨"의 상황에서 자신의 내부로 위축되어 자살도 시도하고 자기를 파괴하고 학대하였다. 결손가정 청소년은 이 시기에 일어나는 신체적 변화를 수용하기 위한 적절한 지식의 결여와 가족들의 지지가 결여된 상태, 자신의 성 역할에 대한 긍정적 동일시 기회의 박탈로 청소년기에 일어나는 신체적 변화를 적절히 수용하지 못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신을 파괴하거나 학대하는 경향이 늦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위축됨"의 변화과정에서 모든 대상자들이 경험하는 부담, 그리움, 슬픔 등이 힘겨움, 고통으로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학생 청소년이 지각한 신체형과 우울 성향간의 관계를 규명하여 은폐성 우울 성향에 의한 문제행동을 예측하고 정서적 선도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 이재우(1985)의 보고로도 지지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결손가정 중학생이 경험하는 "위축됨"은 자신의 처지를 창피하게 여기는 결과이므로 친구, 양호교사 및 상담교사의 주기적인 지지와 상담이 이루어지면 대체로 긍정적인 적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결손가정 중학생의 경험을 서술하고 분석하여 중학생의 경험에 관한 실제 이론을 개발하여 결손가정 청소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이들이 사회생활에 잘 적응하고 긍정적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근거 이론적 틀을 제시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결손가정에서 성장하는 중학교 학생 9명으로서 연구단계별로 선정된 대상자와의 면담을 통해 근거자료를 수집하였다. 대상자 모두 본 연

구자가 직접 면담을 하였고, 대상자의 허락을 받아 면담내용을 녹음하고 녹취록을 작성하여 기록하였다. 면담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2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심층면담 및 관찰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분석은 Strauss & Corbin(1990)이 제시한 근거이론 분석법을 사용하였다. 근거자료를 분석하여 추출해낸 개념은 83개였으며, 이것은 다시 분석과정을 거쳐 21개의 하위범주로 묶었고 이들 21개의 하위범주는 다시 '기막힘', '위축됨', '고통', '지지', '충동적 대처', '자제적 대처', '힘겨움', '극복함', '자립' 등 9가지 상위범주로 통합하였다. 범주화의 과정에서 찾아낸 핵심범주는 "위축됨"으로 나타났으며 하위범주 "움추림"을 핵심범주인 "위축됨"으로 통합하였다.

결손가정 중학생이 경험하는 "위축됨"은 생성, 대처, 변화의 과정을 거치며 긍정적 혹은 부정적 적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거자료 분석과정에서 나타난 각 범주들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열세 가지의 가설을 도출할 수 있었다.

- (1) 고통이 약할수록 "위축됨"은 약해질 것이다.
- (2) 고통이 강할수록 "위축됨"은 강해질 것이다.
- (3) 고통의 정도가 심하고 빈도가 잦을수록 "위축됨"은 강해질 것이다.
- (4) 고통의 정도가 경하고 빈도가 드물수록 "위축됨"은 약해질 것이다.
- (5) "위축됨"이 약할수록 자제적 대처를 할 것이다.
- (6) "위축됨"이 강할수록 충동적 대처를 할 것이다.
- (7) 지지 만족도가 높을수록 "위축됨"에 대해 자제적 대처를 할 것이다.
- (8) 지지 만족도가 낮을수록 "위축됨"에 대해 충동적 대처를 할 것이다.
- (9) 지지형태가 구체적일수록 "위축됨"에 대해 자제적 대처를 할 것이다.
- (10) 지지형태가 피상적일수록 "위축됨"에 대해 충동적 대처를 할 것이다.
- (11) "위축됨"에 대해 자제적 대처를 할수록 자립하게 될 것이다.
- (12) "위축됨"에 대해 충동적 대처를 할수록 갈등과 방황하게 될 것이다.
- (13) "위축됨"이 생성되면 대처 전략과 관계없이 긴장과 고통은 남을 것이다.

자료분석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관계유형

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2가지 명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1) 대상자의 고통은 약하고 빈도도 드물어 "위축됨"이 약할 때 지지 만족도가 높고, 지지형태가 구체적이면 "위축됨"에 대한 자제적 대처로 자립하고 일부는 긴장과 고통으로 남는다.

2) 대상자의 고통은 강하고, 빈도도 잦아 "위축됨"이 강할 때 지지 만족도가 낮고, 지지형태가 피상적이면 "위축됨"에 대한 충동적 대처로 방황하고 일부는 긴장과 고통으로 남는다.

앞으로 결손가정 중학생에 대한 증제는 대상자에게 중점을 두면서 가능한 지지 및 지지형태의 도움으로 대상자가 "위축됨"의 상황에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긴장과 고통이 잘 해결되어 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근거이론 자료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결손가정 중학생의 생활경험에 관한 연구로서 중학생의 경험에 국한되어 있는데, 보다 포괄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결손가정 학생들에 대한 연구가 발달 단계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해구, "결손가정 고교생과 정상가정 고교생의 가족 및 자아에 대한 개념비교",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7.
- 김경중, "부친 부재가 자녀의 인간성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2.
- 김미영, "결손가정 학생과 정상가정 학생간의 합리적 신념의 차이",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9.
- 김선남, "청소년 非行 관련 변인간의 인과적 분석",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4.
- 김성태, "발달심리학" (서울: 범문사), 1967.
- 김소야자, "청소년의 성장 발달과 간호" (서울: 수문사), 1990.
- 김수길, "한국 소년 범죄의 사회적 요인에 관한 조사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70.
- 김순애, "결손가정 아동의 성격특성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7.
- 김태준, "정상가정 아동과 결손가정 아동의 결손 유형에 따른 성격특성, 적응요인 및 일탈 행위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2.
- 김현수, "청소년 가출의 가족 역동에 관한 연구", 한국의 과학, 12(3), 203-238, 1980.
- 김현수, 이길홍, 민병근, "한국가정의 가정 인구학적 특성이 가정의 심리풍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의 과학, 14(4), 403-430, 1980.
- 권혜진, "청소년 분노현상의 근거 이론적 접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4.
- 남홍우, 형사정책 3판, 1965.
- 문선모, "학교적응과 가정환경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학생생활지도 연구 제3집, 1976.
- 민병근, 이길홍, 김현수, "부모의 양육방식이 고교생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회 정신의학적 연구", 한국의 과학, 13(2), 85-101, 1981.
- 박원희, "결손가정 학생의 성격 특성",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7.
- 박재황, "非行 청소년과 정상 청소년의 합리적 신념의 차이",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1.
- 박준희, "교육심리학" (서울: 교육출판사, 20-32), 1970.
- 손직철,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 서울신문, 1977.
- 양길현, "가출아동의 非行 예측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75.
- 유미숙, "보건의설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성격특성의 비교",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79.
- 윤덕중, "범죄사회학" (서울: 박영사, 74-75), 1984.
- 윤태림, "청년심리" (서울: 범문사), 1961.
- 이경룡, "결손가정 중학생의 부적응 양상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7.
- 이계영, "환경에서 오는 아동의 성격 특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75.
- 이길홍, 김현수, 민병근, "학생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가정의 심리풍토 특성과의 관계에 관한 상관분석", 민병근 교수 논문집,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정신 과학교실, 4, 5-21, 1982.
- 이범준, "결손가정 중학생의 성격 특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3.
- 이병하, "청소년 非行에 관한 연구: 가정환경적 요인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4.
- 이영호, "가정내의 문제와 정신장애" (정신과 건강, 1975. 봄), 1975.
- 이영희, "인물화에 나타난 문제지표와 가정환경 변인과의 상관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4.
- 이재우, 이길홍, 민병근, "학생 청소년이 지각한 신체형과 우울성향간의 관계분석", 민병근 교수 논문집,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정신 과학교실, 4, 462-471, 1985.
- 이춘실, "대학생 정상집단의 자아개념 연구", 숙명여자

-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2.
33. 장병림, "아동 심리학" (서울: 범문사), 1984.
 34. 장하경, "부와 모의 양육태도 및 일치여부가 아동의 인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5.
 35. 장호성, "자아개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7.
 36. 전석균, "가정문제와 가정폭력" (생활간호, 6월호, 158-163), 1995.
 37. 정구범, "정상집단과 부적응집단의 합리적 신념차이", 공주 사범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5.
 38. 정영석, "형사정책 정정판" (서울: 범문사), 1977.
 39. 정원식, "현대 교육 심리학" (서울: 교육 출판사), 1985.
 40. 조은숙, "정신위생" (서울: 재동 문화사, 120), 1971.
 41. 조희선, "결손가정 자녀의 가정환경과 적응에 관한 비교 연구", 성균관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78.
 42. 주정일, "학령기 교육의 필요성 진단" (서울: 대한 가정학회), 1972.
 43. 최승제, "자아개념과 가정환경 및 학업성취와의 상관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72.
 44. 최재숙, "결손가정아의 성격 요인에 관한 고찰",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0.
 45. 최희용, "결손가정이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4-15), 1977.
 46. 채명숙, "결손가정이 아동의 성격차원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6.
 47. 홍재진, "청소년 非行의 가정환경 요인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8.
 48. Baldwin, A. L.: "Behavior and Development in childhood", N.Y. : Holt, Rinehart and Winston, 1955.
 49. Andersen, M. L., 이동원, 김미숙 공역, 성의 사회학 (218-219), 이화여자 대학교 출판부, 1990.
 50. Blagg, N. R.: "The behavioural treatment of school refusal", Ph.D.Thesis. London : University of London, 1979.
 51. Bloom, B. S.: "Stability and Change in Human Characteristics", N.Y.: John Wiley, 1964.
 52. Blumer, H.: "Symbolic Interactionism, Perspectives and Method. Englewood Cliffs", New Jersey : Prentice-Hall Inc. 1969.
 53. Bossard, J. H. S.: "Family Situations. Philadelphia" : Univ. Pennsylvania Press, 1966.
 54. Bowerman, C. E. and Bahr, S. J.: "Conjugal power and adolescent identification with parents.", Sociometry, 36, 366-377, 1973.
 55. Cooley, C. H.: "Human Nature and the Social Order", N.Y.: Charles Scribners'Sons. 1902.
 56. Frangle, L. B. et al.: "The children of divorce", Newsweek, 1980.2.11.
 57. Harris, I. D. and Howard, K. I.: "Perceived parental authority : Reasonable and unreasonabl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0, 273-284, 1981.
 58. Heath, A.: "The self-concepts of school refusers", Ph.D.Thesis. London : University of London, 1983.
 59. Lasgari, A. D. and Stehbins, J. A.: "The Reactions of Families to Childhood Leukemia", Clinical Pediatrics, 12(4), 210-214, 1983.
 60. Lurie, O. R.: "The emotional health of children in a family setting",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6, 229-235, 1970.
 61. Strauss, H. and Corbin, J.: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s, 1990.
 62. Torma, A. & Halsti, A.: "Factors Contributing to school refusal and Truancy Psychiat". Fennica, 75, 209-216, 1975.